

If God Be For Us 7th June 2015  
(Romans 8:28-39)

|  |  |
|--|--|
| <p>Murray and his wife, Evonne, had spent many months planning the several thousand kilometre trip into outback Australia with 20 teenagers in two small old buses. Many people had wished them luck. As they departed Murray prayed with the young travellers, explaining to them that Christians do not believe in luck, but in a God who controls all things.</p>   | <p>머리 (Murray)와 그의 아내 에본 (Evonne)은 여러 달 동안 스무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낡은 두 대의 작은 버스로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호주 오지를 여행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머리는 젊은 여행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크리스천은 행운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p>   |
| <p>During the trip one of the vehicles turned over on a rough road. As Murray reached the scene, he found his wife lying in the red dust, the vehicle smashed beyond repair and people wandering around in a dazed state. Suddenly, a thought flashed through his mind, "What do we tell the kids now?" People reacted to the news in two ways. Some said, "what terrible luck!" Others said, "How lucky no one was badly hurt!" How often in our society do we hear people refer to "luck".</p>   | <p>여행을 하는 동안, 버스 한 대가 울퉁불퉁한 길에서 전복되었습니다. 머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는 붉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누워있었고, 차량은 수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으며 사람들은 멍한 상태로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정말 없었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니 얼마나 운이 좋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운"을 언급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p>  |
| <p>Down through the ages people have struggled with the concept of fortune. You can plan your life to a degree, but there are random forces beyond your control. The Greeks saw good and bad luck as ultimate forces above and beyond even the gods. The proverbial Australian approach is: "She'll be right mate! It'll all turn out for the best." Sometimes it does but often it doesn't. Yet strangely, this easy optimism is very close to the Christian attitude to life. Paul writes: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V. 28). The problem with the proverbial expression is that it omits the all-important limitation, "of those who love him". Paul isn't setting out a general principle of life - rather he is setting out something specifically promised to Christians. The way things turn out is not determined by some impersonal principle of luck or fate but by the will of God who works everything for the ultimate welfare of his people - those whom he has brought into relationship with himself through Jesus Christ and who have set their hearts on pleasing God in all they do.</p> | <p>대대로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씨름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임의적인 힘이 있습니다. 헬라 인들은 행운과 불운을 심지어 하나님조차 초월하는 궁극적인 힘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호주 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괜찮을 거야, 친구! 가장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때로는 이 말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이러한 쉬운 낙천주의는 삶에 대한 크리스천의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 절). 속담 식 표현의 문제점은 그것이 지극히 중요한 한정 요소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그는 구체적으로 크리스천에게 약속된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이 해결되는 방식은 특정 개인과 상관없는 운이나 운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됩니다.</p> |
| <p>What Paul implies here is clear throughout the Bible - namely that God is totally in control, he never relaxes his control, and nothing is outside of his control. If he sets his favour on you, you are in a very wonderful position, though life will not be without pain and suffering. God could have let Jonah run away from him to Spain and live out his days in peace. But because he loved</p>   | <p>바울이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성경 전체에 걸쳐 분명합니다 -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결코 그 다스림을 느슨히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임하면, 비록 삶의 아픔과 고통이 없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아주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스페인으로 도망쳐 평화롭게 살도록 그냥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p>   |

If God Be For Us 7th June 2015  
(Romans 8:28-39)

|  |  |
|--|--|
| <p>him and had an eternal purpose for him, he stirred up the winds and the waves and brought him to the very gates of death.</p>   | <p>하나님께서서는 요나를 사랑하셨고 요나를 위해 예정하신 뜻이 있었기에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 요나를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p>  |
| <p>The promise of Romans 8:28 is a promise that transforms the way we face the good, the bad and the failings of life. First, it leads us to gratitude and joy. Notice, Paul does not say that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by themselves! Only God makes the factors of life turn to our good. Many people are shocked and disillusioned by the tragedies and hardness of life. Not Christians. We don’t expect things in life to “work for good” of their own accord, do we? When we find things working out to our benefit, it is all of God, all of grace, all of him. When things work out, we praise and thank God for it.</p>  | <p>로마서 8:28 의 약속은 우리가 인생의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놓는 약속입니다. 우선, 이 약속은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스스로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여러 요소들을 우리에게 선한 쪽으로 돌려 놓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비극과 고난에 충격을 받고 환멸을 느낍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선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 인함이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p>   |
| <p>Second, this truth removes general fear and anxiety when life “goes wrong”, as it were. If God “works” in “all things”, we know that life hasn’t gone wrong at all! Ultimately there are no accidents. The writer of Proverbs says, “The lot is cast into the lap, but its every decision is from the Lord (16:33). The universe is not run by blind chance - it is run by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our heavenly Father if we have trusted in Jesus for salvation. We don’t need to fear life and circumstances.</p>  | <p>두 번째로, 이러한 진실은 인생이 "잘못되어 갈 때", 일반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인생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궁극적으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6:33). 세상은 전적인 우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 의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인생과 그 상황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p>   |
| <p>Further, this helps us to see God’s purpose in difficulties. If God is working for our “good” in everything, then we see that both the good things and the bad things serve the purpose of furthering the good in our life. The 18th century pastor and hymn-writer, John Newton, made the following logical deduction from Romans 8:28: “Everything is needful that he sends; nothing can be needful that he withholds.” So, if we think we require some good thing that God has withheld from us, the reality is that we don’t need it. It also means that if we feel our life has been ruined by some bad things, the reality is that that thing is playing some very important role in our lives. It is teaching us, moulding us, enriching us, humbling us and so on. Romans 8:28 teaches us to look at life’s troubles as part of God’s loving purpose for us. It is not telling us that troubles, suffering, difficulties have to be enjoyed and welcomed - but rather that they will be used by God for our good.</p> | <p>또한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모두 우리 삶 가운데 선을 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18세기 목사이자 찬송가 저자인 존 뉴턴은 로마서 8:28로부터 다음과 같은 논리적 추론을 했습니다: "그가 보내는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가 주지 않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는 무언가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무언가 나쁜 것으로 인해 망쳐졌다고 느낀다면, 현실은 그 나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또한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28 은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로 보도록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즐기고 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p> |
| <p>Third, this wonderful verse gives us confidence that <u>we</u> cannot ruin God’s good purposes for us.</p>  | <p>셋째, 이 놀라운 구절은 <u>우리가</u>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망칠 수 없다는 자신감을</p>  |

If God Be For Us 7th June 2015  
(Romans 8:28-39)

|   |  |
|---|--|
| <p>"All" really means all! So it includes even our backsliding and our sin. Sin is always bad, always a terrible thing, and we will always live to regret its painful consequences in our lives. But God is so great that he weaves it into our ultimate good. He can use even our sins and failures to humble us and teach us a right view of ourselves and a greater appreciation of Christ. He makes use of sin to show us, as his children, our weakness and frailty - and need of his grace. And he even works through sin to save his people. This does not excuse our sin, but it does cause us to look for how God is working through it - how we might be able to echo Joseph, who told the brothers who had sold him into slavery: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Genesis 50:20).</p>   | <p>줍니다. "모든 것"은 실제로 모두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과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죄는 언제나 나쁘고, 언제나 끔찍한 것이며, 우리는 항상 인생에서 죄의 고통스런 결과를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선 가운데 죄를 엮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조차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시고 우리에게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용해 그분의 자녀 되는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를 보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죄를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지,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20).</p>  |
| <p>But what is "the good" that God is sovereignly working for in all the circumstances of our lives? Verses 29-30 tell us what that good is and lay out the process by which God achieves that good. And we see that God's definition of "good" is much greater and higher than ours tends to be:<br/>"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vv. 29-30)</p>   | <p>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29-30 절은 그 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시는 과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내리는 정의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30 절).</p>  |
| <p>These verses explain what God's "purpose" actually is - what God is working out in all the circumstances of life. Everything that happens to us - good and bad - "all things" - are working out for our final and ultimate sanctification, holiness and salvation. The "good" God always is working for us is character change, conforming us to the likeness of his Son. "All things": are used by God in our hearts so we are taught, humbled and refined into the likeness of Christ. He is pouring us into the mould of Christ - Christ's character, the fruit of the Spirit. Being conformed doesn't mean a superficial likeness, but something total. We are being remade from the inside out, from the core of our being. We are being so conformed "that he (Jesus Christ)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We will be Christ's brothers and sisters. We are not just legally adopted into God's family (having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 v. 15) - we are also taking on the family resemblance. We are told in the Bible</p> | <p>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 좋은 일과 나쁜 일 - "모든 것"은 우리의 최종적 그리고 궁극적인 신성화, 거룩함 그리고 구원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선"은 인격의 변화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틀,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라는 틀에 부어 넣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유사함뿐 아니라, 전적인 무언가를 뜻합니다.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우리 존재의 핵심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로 (예수 그리스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단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일 뿐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 15 절), 가족간의 유사함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p> |

If God Be For Us 7th June 2015  
(Romans 8:28-39)

|   |   |
|---|---|
| <p>that when we are born again, we get God's very nature, his DNA if you like. We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is the way Peter puts it in 2 Peter 1:4. Through the circumstances of life, God is drawing that out and shaping us into brothers and sisters of Christ, who resemble him and our Father.</p>   | <p>우리에게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4 에서 적고 있습니다. 인생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끄집어 내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만들고 계십니다.</p>   |
| <p><u>A Glorious Unbreakable Chain</u> (vv. 29-30)<br/>In vv. 29-30, Paul looks back over the first eight chapters of Romans and sums up in five brief steps the process that God takes to conform his children to the likeness of his Son. He lists 5 active verbs that describe what God has done - the five steps that God has taken in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stretching from eternity to eternity:</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He foreknew - God set his love on us.</li> <li>(2) He predestined - God planned a glorious destination for us.</li> <li>(3) He called and,</li> <li>(4) He justified - these two tell us that God works out his plan in time in our earthly life.</li> <li>(5) He glorified - God completes the plan in eternity.</li> </ol> <p>Let us look at each of these steps in turn.</p>                                    | <p><u>영광스러운 끊을 수 없는 사슬</u> (29-30 절)<br/>29-30 절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첫 여덟 장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택하신 과정을 간단히 5 단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묘사하는 5 개의 능동형 동사를 나열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취하신 다섯 단계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li> <li>(2)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도착지를 계획하셨습니다.</li> <li>(3) 하나님이 부르셨으며,</li> <li>(4)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늦지 않게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li> <li>(5)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이제 차례로 이 단계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li> </ol> |
| <p>1. <u>God foreknew</u><br/>Of course, God in his omniscience knows the future, and sees everyone who has ever lived and will ever live - but that is not what is meant here. In the Bible, when we are told that God "knows" someone, it means he has set his love on that person in a personal way. For instance, when Jesus says in the Sermon on the Mount,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when he returns),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drive out demons and perform many miracles?" Then I will tell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Matthew 7:22-23) - he doesn't mean he didn't know about them, but that he never had any relationship with them. Therefore "foreknew" means "forelove". Thus, God set his love on us back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How remarkable! How truly stunning!</p> | <p>1. <u>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u><br/>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며, 이제껏 살았던 모두와 앞으로 살 모두를 살펴십니다 - 하지만 여기서 뜻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따라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p>   |
| <p>2. <u>God predestined</u><br/>To predestine means to set a destination for ourselves or someone else. It means to make a plan ahead of time. Predestination simply tells us that God made a decision ahead of time about the goal toward which he will move</p>  | <p>2. <u>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u><br/>미리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적지를 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정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갈 목표에 대해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목표는</p>  |

If God Be For Us 7th June 2015  
(Romans 8:28-39)

|   |  |
|---|--|
| <p>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 that goal, as we saw in Romans 8:29, is conformity to the character of Christ. God, because of his love for us, has set a destination for us - to be with him in glory,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Christ.</p>   | <p>우리가 로마서 8:28 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정해놓으셨습니다.</p>   |
| <p>3. <u>God called</u><br/>Jesus said,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has enabled him" (John 6:65). We may think we choose God, but the reality is that we only respond to the call of the Spirit of God. This is not to say that we have no choice in the matter, we certainly do. But it is also true that before we chose God, He drew us in ways that we do not even recognize. Some, like the apostle Paul, are called by God in a very dramatic way. When God called Paul he did it with a light from heaven and the voice of the risen Lord on the road to Damascus. But in most cases, the call of God is quiet and imperceptible, made up of hundreds, even thousands of seemingly insignificant events and unnoticed turning points.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p> | <p>3. <u>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u><br/>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65).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우리는 단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은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을 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한줄기 빛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용하고 감지할 수 없는, 수백 수천 개의 길보기에는 사소한 사건들과 눈에 띄지 않는 전환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p> |
| <p>4. <u>God justified</u><br/>To be "justified", as we have already seen in the earlier chapters of Romans, is to be pronounced and treated by God as legally righteous and blameless because of the work of Jesus Christ in his life and death. This is our new status when we believe in Jesus. The point of v. 30 is that we need to see that justification is not an isolated incident, but inextricably linked to the whole plan of God's purpose and activity, beginning in eternity, coming into time and history, and ending again in eternity.</p>  | <p>4. <u>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u><br/>"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로마서 앞 장들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의롭고 흠 없는 존재로 선언되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부여 받는 새로운 지위입니다. 30 절의 요점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영원부터 시작하여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와, 다시 영원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뜻과 행위의 전체적 계획에 불가분하게 얽여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p>   |
| <p>5. <u>God glorified</u><br/>To be glorified means to be free of sin and made perfect in body and soul. It is what Paul has already spoken of earlier in chapter 8,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o be revealed in us...the glorious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vv. 18-21). But notice what it says at the end of v. 30 - "he also glorified". Paul speaks of our <u>future</u> glorification in the past tense, as though it has already happened. Why? Because it is as certain as any other part of the chain of verbs. It is <u>so</u> certain that it might as well already have happened. It is like this domino chain - once God pushes the first domino by foreknowing us, setting his love on us, all the other dominos will fall - it is certain and sure, right through to our</p>          | <p>5. <u>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u><br/>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몸과 영혼이 완벽해 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바울이 앞서 8 장에서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18-21 절). 그러나 30 절 끝부분에서 무어라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로 <u>미래의</u>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것이 일련의 동사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매우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u>너무나</u> 확실해 이미 일어난 일이나 진배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도미노 사슬과 같습니다 -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두는 것으로 일단 첫 번째 도미노를</p>  |

If God Be For Us 7th June 2015  
(Romans 8:28-39)

|  |   |
|--|---|
| <p>glorification.</p>  | <p>밀면, 나머지 모든 도미노가 쓰러질 것입니다 - 이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매우 확실하고 분명합니다.</p>  |
| <p>How does this look for us in our present lives here on earth? Christians have experienced being called as they heard the gospel, and enjoy being justified because they have put their faith in Jesus Christ and his life and death for them. Now, Christians are able to <u>look back down the chain</u>, and know that before creation God fore-loved them, and predestined them to be called and justified. And a Christian can <u>look on up the chain</u>, and know that in eternity they will know unimaginable glory in his presence. If we love God, we are called (v. 28). And, if we are called people, then we are fore-loved, predestined, justified and soon-to-be-glorified.</p>  | <p>이는 여기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크리스천은 복음을 들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을 경험했으며, 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심을 받아 기뻐합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이 사슬의 아래를 되돌아볼 수 있으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미리 정하시어 그들을 부르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크리스천은 <u>그 사슬의 위를 볼 수 있으며</u>, 영원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알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28 절).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미리 사랑 받고, 미리 정해진, 의롭다 함을 받고 곧 영화롭게 될 존재입니다.</p>  |
| <p><u>What Shall We Say in Response?</u><br/>“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is?” Paul asks in v. 31. In vv. 31-35 Paul asks 5 question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v. 31). If the God who has planned and purposed our glory is all-powerful, why are we afraid of any opposition at all?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 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v. 32). If the God who has purposed our glory is willing to give up his most precious possession, his Son, why worry about our needs?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It is God who justifies” (v. 33). If God who has purposed our glory has declared us righteous, why ever feel guilty or unforgiven? “Who is he that condemns? Christ Jesus, who died -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 - 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v. 34). If the Christ who lived a perfect life and died a perfect death is standing before the Father on our behalf, why ever feel guilty or unforgiven?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v. 35). This is the last question because all the other questions were really just other versions of this one. The only thing that we would really have to fear, that would really harm us, is to be separated from the love of Christ.</p> | <p><u>우리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까요?</u><br/>"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은 31 절에서 묻습니다. 31-35 절에서 바울은 5 개의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 절). 만일 우리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어떠한 적이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32 절). 만일 우리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다면, 왜 우리의 필요에 대해 걱정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33 절). 우리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죄책감을 갖거나 용서받지 못한 느낌을 가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4 절). 만일 흠 없는 삶을 살고 흠 없이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계시다면, 죄책감을 갖거나 용서받지 못한 느낌을 가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 절). 다른 모든 질문들이 실제로는 그저 이 질문의 다른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 실제로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는 것입니다.</p> |
| <p>The central question of the Christian life - the one that prompts all our doubts and worries and tensions - is this: Is there anyone or anything that can separate me from Christ's love for me? As we look around we see many things that would seem to. Trouble, hardship and</p>   | <p>크리스천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 우리의 모든 의심과 걱정,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무언가가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박해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크리스천에게</p>   |

If God Be For Us 7th June 2015  
(Romans 8:28-39)

|   |  |
|---|--|
| <p>persecution come to all Christians in varying degrees. Famine, nakedness, danger and sword come to many. The experience of God's people through the ages has very often been to face death daily (Psalm 44:22). There are many obstacles and much opposition - and surely any one of them could separate us from Christ's love? NO - even in these worst of circumstance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None of them can break the chain in vv 29-30. Christians triumph through and over the worst that life brings. Why? Because God does not lose any of "those he foreknew", upon whom he set his love. God is always working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p>      | <p>다닙니다. 기아와 결핍, 위협, 칼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닙니다. 오랜 세월이 거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때때로 매일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4:22). 많은 장애물과 많은 반대세력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29-30 절에 언급된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삶이 가져오는 최악의 것을 통해 이를 딛고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자들 중 어느 하나도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p>                                |
| <p>And so Paul is "convinced" that nothing - absolutely nothing -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Nothing in human experience ("neither death nor life"); in the spiritual realm ("neither angels nor demons"); in time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in anything that opposes God's people ("any powers"); in space ("neither height nor depth") - nothing "in all creation".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Christ's love! Why? Because God loves us simply because of his choice, not because of anything in us (which may change), nor anything around us (which may change). He loves us because he loves us.</p> | <p>따라서 바울은 아무 것도 - 절대 아무 것도 -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영적인 영역에서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시간상으로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능력이나"); 공간상으로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안의 그 어떤 것이나 (변할 수도 있는), 우리 주변의 그 어떤 것이 (변할 수도 있는)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p> |
| <p>Paul fires these questions at us in vv. 31-35 to make us think - it is incredible, intense logic. "Are you afraid?" asks Paul. Then you aren't thinking! "Are you worried?" Then you aren't thinking! "Are you feeling guilty?" Then you aren't thinking. Look and see and grasp the logic of free grace and justification by faith which is yours in Jesus Christ. They aren't dry doctrines. They are life itself - abundant and eternal life. If you belong to Jesus then why aren't you living with overwhelming assurance and in the power of God's Spirit?</p>   | <p>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해 31-35 절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 이는 놀랍고, 매우 강도 높은 논리입니다. "두렵습니까?", 바울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거저 주신 은혜와 의롭다 함에 대한 논리를 바라보고 이해하십시오. 이는 무미건조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는 삶 그 자체 - 풍성하고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다면, 여러분은 왜 넘치는 확신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p>   |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